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어웃 사랑화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선교는 삶이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치, 교회의 존재가치는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 전파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계절이 왔습니다. 방학을 앞 둔 중·고·대학생들이 막바지 선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회사의 휴가를 이용하여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중요한 것은 선교는 선교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터 등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눅 9:23).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교사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랏내외오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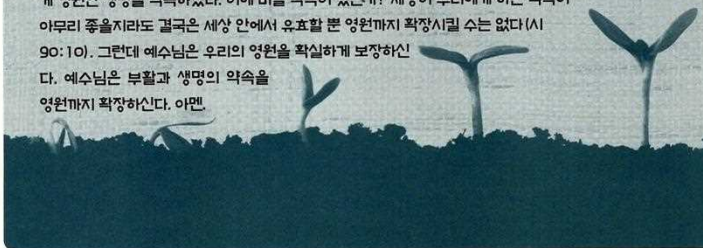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신령한 예배

탁아부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예배를 적극 돕고 있습니다. 1:1 돌봄시스템으로 울지이기에 안심하고 어린 아이를 맡기셔도 됩니다. 이처럼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탁아부에 아이를 맡기시기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본당 2층 로비 및 탁아부실(선교관 1층)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김성관 책임목사

지금 세상은 크고 작은 사건들, 자연재해들 때문에 무척이나 시끄럽다. 이 혼잡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 패배에 빠지게나 쾌락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 조의 높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 모든 말씀의 초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 오라 비가 다시 살아나리라"(요 11:23).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을 자신의 개성대로 받아 대답하셨다(요 11:24). 이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자. 자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살전 4:16~17). 예수님은 모든 능력 중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나사로의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더욱 길게(extend) 하셨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6).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에 비할 약속이 있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결국은 세상 안에서 유효할 뿐 영원까지 확장시킬 수 없다(시 90:10).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을 확실히 보장하신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약속을 영원까지 확장하신다. 아멘.



THE BIBLE AND THE BATTLE

⁽¹⁾Then Jesus was led up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²⁾And after He had fasted forty days and forty nights, He then became hungry. ... ⁽¹⁰⁾Then Jesus said to him, "Go,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¹¹⁾Then the devil left Him; and behold, angels came and began to minister to Him.

(Matthew 4:1-11)

Every Christian is in a spiritual war! No matter how long or how strong a Christian, Satan still comes after you. Every day, every moment, every single chance the devil gets He wants to attack you. There are a lot of Christians today who think because they are saved they will not face the devil's schemes. This is simply not true. 1 Peter 5:8 says, "Be of sober spirit, be on the alert. Your adversar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 My friend, salvation does not deliver you from this battle, but it does equip you to win. Temptation is a daily part of living in this world. It is hand to hand conflict, but the Bible in the hand and heart assures victory! Today's Bible passage shows us that when Jesus, the Lord God, fought in battle with the devil he said, "It is written" every time. He used Scripture, not emotion, to overcome the enemy. Oh how appropriate His Scripture responses were for the conflict.

Jesus responded,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God" (Mt. 4:4). Jesus fasted forty days and nights in His human body in preparation for His ministry work. He was desperately hungry and weak when the devil approached Him and encouraged Him to use His godly powers for Himself,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at these stones become bread" (Mt. 4:3). Satan was pushing on Jesus' ego. He was provoking Jesus to use His God given talent and power for show. Jesus answered the tempter with Scripture from Deuteronomy 8:3, "that He might make you understand that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man lives by everything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the Lord." We need more than bread in this battle. We need God's Word to be our daily food. We can defeat Satan with Scripture because the Word of God is the sword of the Spirit, "And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Eph. 6:17). The Bible must become our daily bread.

Jesus responded,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Mt. 4:7). Satan tempted Jesus on the pinnacle of the temple. It must have been a great feeling standing so high and seeing Jerusalem from such a lofty position. Many temptations happen in religious places because we are most vulnerable when we are in a high place. Satan quoted Psalm 91:11-12 to Jesus. He was reminding Jesus that He wouldn't get hurt if He jumped down. He was acting like an angel of light, very similar to how the wolves in sheep's' clothing tend to act today, "For

such men are false apostles, deceitful workers, disguising themselves as apostles of Christ. No wonder, for even Satan disguises himself as an angel of light. Therefore it is not surprising if his servants also disguise themselves as servants of righteousness, whose end will be according to their deeds" (2 Cor. 11:13-15). Jesus answered the trickster with Scripture from Deuteronomy 6:16,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God told Moses concerning His people, "Surely all the men who have seen My glory and My signs which I performed in Egypt and in the wilderness, yet have put Me to the test these ten times and have not listened to My voice, shall by no means see the land which I swore to their fathers, nor shall any of those who spurned Me see it" (Num. 14:22-23). Psalm 78:40-41 remind us of how badly the Israelites behaved, "How often they rebelled against Him in the wilderness and grieved Him in the desert! Again and again they tempted God, and pained the Holy One of Israel." People who don't trust God keep testing Him. Have you been testing God?

Jesus responded,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Mt. 4:10). Satan wanted Jesus to worship him. He took Jesus to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Jesus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glory, and rightly promised to give them to Jesus if Jesus would only bow down to him. Worshipping Satan is apprehensible to Jesus. Sadly, many worship people and things rather than the Lord. Who do you worship? Who do you really serve? The Lord should have all our worship and service. Jesus answered the enemy with Scripture from Deuteronomy 6:13-15, "You shall fear only the Lord your God; and you shall worship Him and swear by His name. You shall not follow others gods, any of the gods of the peoples who surround you, for the Lord your God in the midst of you is a jealous God; otherwise the anger of the Lord your God will be kindled against you, and He will wipe you off the face of the earth." During this third encounter, Jesus strongly addressed Satan, "Go, Satan!" (Mt. 4:10). Indeed, Satan ran away from Jesus. "Then the devil left Him; and behold, angels came and began to minister to Him" (Mt. 4:11).

My dear friends, are you in the midst of a battle? Please don't try to win using your own talent. Are you struggling with temptation? Please take the Bible into battle. Are you wondering if you will overcome the enemy? Please know that the sword of the Spirit will bring victory every time. Amen. 🙏

성경과 그 전투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3)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4)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1~11)



김성관 목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교인이 아무리 강해도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쫓아다니입니다. 마귀는 매일, 매 순간, 단 하나의 기회라도 생기면 여러분을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계략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8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이 전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줍니다. 유혹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매일 매일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마음 중심에 둘 때에 승리가 보장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주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투를 벌일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아닌 성경을 인용하심으로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투에서 성경으로 대답하신 것은 얼마나 적절한 대응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서 굶주리고 지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라고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 마귀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약올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과시용으로 쓰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험하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3)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뿔 2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즉 매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7). 성경은 우리의 매일 양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마 4:7)고 대답하셨습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높이 우뚝 솟은 곳에 선 채로 예루살렘을 보는 기분은 분명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유혹들이 경건한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유혹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시편 91:11~12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 쓰는 방법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13~15). 예수님은 이 속이는 자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신 6:16)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 모세에게 “내 영광과 애급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민 14:22~23)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8:40~41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못 행동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스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둬 거둬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경배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길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이로운 수도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사탄과 물건을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진실로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진노하시라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신 6:13~15)의 말씀으로 대적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전투 중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마 4:10)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님에게서 도망갔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마 4:11).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전투 중에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적을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제발 성령의 감이 매 순간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고후 4:3~4)

주 예수를 믿으라

청지기훈련 2주일 전에 미리 대학 후배에게 전화하여 청지기훈련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7시쯤 역삼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6시 40분에 역삼역에 도착하여 전화해 보니 통근버스를 놓쳐 예정보다 늦게 도착할 거라고 했다. 7시 20분쯤 만나 허겁지겁 분당으로 들어갔다. 중요한 말씀의 앞 부분을 놓쳤지만 은혜 가운데 설교의 요점을 이해할 수 있었고, 끝까지 감동이었다. 청지기훈련은 이번이 네 번째 참석하는 것이지만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내게 각별했다. 충경교회에 처음 나오기 전에 이미 두 번의 청지기훈련에 참석한 적이 있지만 믿음에 의해 이끌린 건 아니었다. 사장님께서 어느 날 “들어오는 금요일에 교회에 좋은 행사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셨다. 내키지 않았지만 그분의 도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년 6월 25일 청지기훈련 때 처음 참석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해 10월 22일 청지기훈련을 또 꾸준히 나갈 때 그 때의 감사의 표시로 한 번 더 참석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등록한 새가족양육부 과정을 마친 2월 말에는 충경의 성도 신분으로 세 번째 청지기훈련에 참석했다. 작년 두 번의 청지기훈련은 두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사의 성격도 모든 게 참석했었고, 지난 2월에는 큰 감명을 받지 못했다. 아마도 주님에 대한 나의 나약한 믿을 때문이었으리라. 그 후 주일3부예배, 장년부모일, 교구 모임, 교사양성부과정, 금요찬양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한편, 성경도 읽으며 별 생각없이 읊조리던 사도신경도 깊이 읊미하려고 애썼다. 교회에서 점차 은혜 받은 곡들이 많아지자 아예 일 주일 동안 사무실에 있으면서 일과 후에 밤새도록 온라인으로 찬송가집에 있는 모든 곡들을 반복해서 듣고 부르며 가사를 읊미했다.

약 4개월 동안 주님에 대해 좀더 알게 되면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진 것 같았다.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활짝 연 상태로 맞은 청지기훈련에서는 위임복사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라는 주제로 설교한 목사님의 말씀은 분명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가리어진 것은 복음이 불투명하고 모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에는 과욕이 필요없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한때 나는 구원받는 것은 선행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시한 행위로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심지어 “모든 선함의 바닥에는 자신의 이기심이 깔려 있다”고 하셨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고,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훈택(성도, 2교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동안의 청지기훈련을 돌이켜보면 기대로 설레기보다는 여느 금요찬양집회 때처럼 ‘말씀 듣고 찬양하고 출석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다. 문득 ‘이런 나의 모습을 본 주님께서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었네.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시간만 보내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는데... 선포되어질 말씀을 보니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이기에 점점 복음의 진리가 퇴색해져 가는 이 시대에 꼭 들어야 하고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 이번만큼은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찬양연습 시간에 맞춰 일찍 교회에 갔다.

드디어 시작! 두런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속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복음이 가리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어찌만 이리

도 나의 현재 상황과 닮았는지? 입술로는 영혼 구원을 말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안다리 걸쳐 생활하는 나. 주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복음을 감추는 자는 아닌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비는 내리고 차가 너무 막혀 짜증이 나려고 하는 순간, 이것도 마귀가 날 시험하는 것 같아 차 안에서 기도드렸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시고 복음을 감추는 자가 아닌, 드러내는 자 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오늘의 말씀에 도전되어 나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길 소망하오니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훈택(집사, 10교구)

나를 살리신 복음

이번 청지기훈련은 새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였고 아침부터 전화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또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 기쁜 날이었다. 그들과 함께 참석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준비한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다.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소식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임을 힘있게 선포하시는 위임복사님. 이런 복음을 우리가 문화적인 복음으로 만들어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다고 말씀하셨고,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셨다. 바르게 살고, 인정받으며 살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죄하는 기쁜 소식이다.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전하고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는데도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한다. “주여!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늘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짜이고 예수님이 대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정숙(집사, 16교구)

오직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이번 청지기훈련 때는 특히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고 직장을 그만두었고, 주님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주님께 통달된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체인 분이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이 지켜주시길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이번 청지기훈련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 가족에게 감추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현정현(집사, 14교구)

**두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의 이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흥미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주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전하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크고 비밀스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도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주님! 가진 자 앞에서 작아지며 놀라 있는 자를 부러워하며 비교되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마음이 무겁고 또 무겁고, 슬프고 또 슬펐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면서도 완전한 감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세상의 시간 때문에 억눌리고 갇혔다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처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까지 마음을 혼미케 하며 말씀을 갈라지게 하며 영광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가렸습니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천국의 비밀, 창세 전부터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습니다(빌 3:7-8). 인생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한없이 어두움으로 내 영혼을 몰아가고 있던 세상의 신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나를 성령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오직 주 예수님이 되기를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따르셨습니다!”라고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최한복(집사, 9교구)

망한 나를 찾으시고

나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간다. 복음은 구원을 받을 십자가다. 나도 살인 복음이 너도 살인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내가 주님을 알아본다. 감추어졌다는 나를 오래 참으시다가 절 그곳에 보배를 가지게 하신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의 피로 내가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에게 생명이란 무엇이며 무슨 의미일까? 생명은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와 내기 호흡을 같이하고 무릎에 앉혀 같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 같은 소리 내어 주님을 기쁘게 노이는 것이다. 세상이 악하고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단코 살 수 없다.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나는 누군가가 날 알아주길 슬며시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등에 업고 일어서고 싶은 나의 욕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머리통을 망치로 한 대 내려치고 바보가 되어 버리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신다. “아이고! 이제 나는 망했다. 돌머리가 되었으니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했더니 주님은 이 망한 나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내 상한 머리통을 만져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역질이라 용기를 내어 청지기훈련이 있다고 권했더니 그래도 전하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신다. 그분도 말씀의 자리에 같이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 드는 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ني가 싶다.

지현화(집사, 5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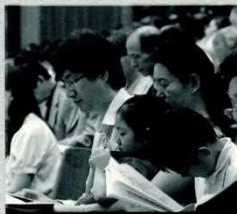
예수님의 나팔처럼

목사님의 외침이 예수님의 나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의 외침은 단순히 사람이 말하는 외침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 같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통곡과도 같았습니다. 사탄은 저에게 속삭인 것이었나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 제목은 또 뭐란 말인가?’ 제목부터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왜 복음이 감추어졌는가?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고 지금도 여러 나라 언어로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듯이 저의 두 눈에 이변 청지기훈련의 주체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의 공금증을 바로 해소 시키고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또 이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목사님의 호소하시는 간절한 말씀이 사울이 바울 되던 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죄악에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도구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저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바깥 어두운 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예수님 안인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재차 강조하시며 애타게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을 진정한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비늘인 ‘세상의 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를 씻겨주신다는 진리를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비늘인 세상의 신이 벗겨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명행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아닌,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복음, 곧 전적인 주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언제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영안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복음을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총현의 모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조 받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히 설 증거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모든 빛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유인석(청년1부)



성경 파노라마



성경의 언약

언약(Covenant)이란 문자 그대로 두 주체가 '방향' 값에 맺은 약속이다.

단,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을 말한다.

성경의 여러 언약들은 표면적으로는 시대와 인물에 따라 각각 다양하고 단편적인 것 같지만,

그 근본 목적과 본질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인간 구속의 언약이다.

따라서 성경의 언약을 한 자리에 모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각 시대에, 그리고 전 시대에 걸쳐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서로 연속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는

언약은 크게 보면 인간 타락 이전의 행위 언약과 이후의 은혜 언약으로 구분된다.

은혜 언약은 다시 예수님이 인간 구속을 위한 희생 사역을 위해 초림하신 것을 약속한 옛 언약, 곧 구약(Old Testament)과

초림 후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구속을 최종 실현하시기 위해서,

즉 천국을 최종 도래시키기 위하여 새로 주신 새 언약, 곧 신약(New Testamen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칭	제결자	내용	의미	특징
영원 언약	신약과 언약 (창 2:16-17)	범죄 이전의 최초의 인류이자 대표인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룰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 타락 전 인간에게 주신 첫 언약 • 첫 사람 아담은 이 언약에 실패함 •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고전 15:45,48-49) • 쌍무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창 3:15	타락 후 모든 인류의 대표이며 신조인 아담과 하와	한 완전한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 타락 후 인간에게 주신 첫 언약 • 일명 원시 복음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첫 예언 • 편무 언약
구약 언약	무지개 언약 (창 9:8-17)	대홍수로부터 구원 받은 노아와 그의 후손 및 생령 있는 모든 짐승들	다시는 땅 위의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 타락 후 인간에게 주신 첫 언약 •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삼으심 • 편무 언약
	햇불 언약 (창 15:9-21)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 하나님께서 햇불 모양의 가시적 형태로 나타나 언약 하심 •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분깃을 상징 • 편무 언약
	함례 언약 (창 17:1-22)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 내적 믿음에 대한 외적 증거의 요구(창 4:11) • 신약의 세례와 유사 • 쌍무 언약
	시내 산 언약 (출 19-24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출 32:1-20) • 율법에 근거해 맺은 첫 최초의 쌍무 언약
	소금 언약 (민 18:19)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	하나님께서 드려진 거제로서 성물을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주리라	• 소금은 부패, 변질을 방지함. 따라서 이 언약은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암시(왕하 2:19-22) • 편무 언약
	제사장 언약 (민 25:10-31)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로써 불의를 척결한 비느하스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케 하리라	• '평화의 언약' (민 25:12)으로도 불림 • 신앙의 열심을 촉구하는 언약 • 편무 언약
	다윗 언약 (삼하 7:5-16)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	다윗 왕의 왕위를 영원히 그의 후손에게 잇게 하리라	• 메시아(그리스도)의 통치 암시 • 편무 언약
	새 언약 (렘 31:31-34)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꽃거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	• 새 언약, 곧 신약이란 말이 성경 최초로 나타남 •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 • 편무 언약
	보혈 언약 (마 26:26-29)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 이 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성도들의 죄는 모두 씻을 받으리라(히 8:10-13)	•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와 함께 죽고 사는 '그리스도의 합례' (골 2:11)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성령 내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 (요 16:13) • 구약에 예언됨(렘 31:31-34) • 그리스도께서 보충과 증보가 되심(히 7:22; 8:6) •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짐(마 26:28) • 시간상 영원함(히 13:20) • 편무 언약
	보혜사 언약 (요 14:16)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실(행 2:1-4,33) •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성도와 함께 하심(요 14:16-17) • 편무 언약
신약 언약	재림 언약 (요 14:2-3; 행 1:11)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재림하시어 사탄을 멸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마 25:41; 계 19:11-16) •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은 선행, 충성에 따라 상벌 받음(고후 5:10) • 주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권세 하에 있음 • 편무 언약

언제나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정말 어렸을 적에, 내가 영적으로 힘이 들지 않았던 때에 첫 선교를 다녀왔기에 이번 선교에 동참하고픈 마음을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재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만 해도 수능을 치르고 나면 곧장 여행이나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재수를 하는 동안 주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하는 당일 이사야서를 보다 선교의 사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사 61:1). 사역 중간에 배가 아프긴 했지만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받은 기름과 소망이 이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김기태(대학부)

앞으로 죽는 날까지

지화와 함께 하시고, 사역 가운데 더욱 큰 은혜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핑계도 많았고 걱정과 근심이 앞서서 '내가 과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힘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에 대한 걱정에서 저를 몰도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죽는 날까지 저의 삶에 주님만이 임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은혜(대학부)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3차 심사와 4차 심사 기간 저희 팀은 거의 육적인 한계에 다다라 진행을 마치며 부족한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처음 본인의 선교 지원 의지와는 너무나 다른 직책과 상황에 놓여졌고, 우리 팀원들 모두가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험에 우리는 흔들렸지만 주님의 음성은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날 다 같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과 한 성령을 구하고 파송예배에서 성령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의 짐을 지며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가난한 성령으로 네팔의 영혼들을 주님의 재자로 삼아야 하는 사명을 받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유정옥(청년1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2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4일(목) ~ 7월 22일(금)	6교구 2팀	최용길
7월 15일(금) ~ 7월 23일(토)	14교구 2팀	임희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4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4일(월) ~ 7월 12일(화)	17교구 1팀	박찬욱
7월 4일(월) ~ 7월 12일(화)	교화직원 1팀	김여현
7월 5일(화) ~ 7월 13일(수)	20교구 2팀	강석화
7월 7일(목) ~ 7월 14일(목)	새가족위원 1팀	김철남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5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7일(월) ~ 7월 4일(월)	9교구 2팀	오준분
6월 27일(월) ~ 7월 5일(화)	5교구 3팀	김희동
6월 27일(월) ~ 7월 5일(화)	11교구 4팀	김현배
6월 28일(화) ~ 7월 6일(수)	12교구 1팀	이상범
6월 28일(화) ~ 7월 7일(목)	15교구 1팀	박원화



코이노니아 휴게실

모든 성도를 위한 믿음의 쉼터입니다.

위 치 충현교회 제2교육관 1층

매 뉴 커피 · 음료 · 쿠키 · 머핀 등

이용방법 쿠폰제(쿠폰 구입은 사무국)

이용시간 화요일~금요일(9:00~18:00)
토요일 · 주일(9:00~16:00)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537	이주원	영아부	22	출생	2558	지세미	양육반	7	이승근
2538	김준민	교역자			2559	장희진	초등2부	3	이말선
2539	한진영	교역자			2560	김하영	대학부	17	김지은
2540	김혜원	교역자			2561	김도성	양육반	5	한 윤
2541	이태원	교역자			2562	최금임	양육반	9	이윤달
2542	김지영	교역자			2563	조미숙	양육반	9	조용혜
2543	이소을	교역자			2564	파종	외선부	25	권상득
2544	이하을	영아부	교역자		2565	한철	외선부	25	황정미
2545	김민혁	19	지석현		2566	트키에레네	외선부	25	배지마
2546	이수일	중등부	3	유지현	2567	전 흥	양육반	7	유정자B
2547	박보민	양육반	3	이혜경	2568	정준자	양육반	13	성 중
2548	임규리	대학부	22	이진향	2569	박기찬	초등1부	20	이미지
2549	조숙자	양육반	14	장상길	2570	양정수	양육반	2	양정모
2550	홍지혜	대학부	5	이한솔	2571	김태수	예비다부	16	김유식
2551	여태식	양육반	10	이정진	2572	권유진	대학부	19	원종진
2552	윤봉준	양육반	21		2573	이세하	고등부	3	조이라
2553	권하진	양육반	11	송한성	2574	차재형	양육반	1	
2554	이한길	양육반	19	전정중	2575	조이라	청년1부	14	임혜인
2555	김용광	양육반	20	조성욱	2576	노영애	양육반	10	김기배
2556	박술기	양육반	1		2577	정택준	유치부	3	이말선
2557	김민규	양육반	20	김희숙	2578	정택민	유치부	3	이말선

